

## 오피니언

## 금남로에서

김우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수위 인선 결과, 박 당선인의 최대 공약이었던 대량 평 인사원칙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애당 후보에게 '불표'를 던진 뒤 대선 폐쇄 상실감과 함께 지역소외를 우려해온 호남으로선 인수위에 호남 인사가 일부 기용되자 다소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박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을 반(反)대한국 세력이나 하며, 심각한 분열주의적 행태를 보여온 인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한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 역대 정권 호남 차별 극심

그동안 호남은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역대 정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 MB정부는 호남 차별을 드러내놓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차관 등 요직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했으며, 각종 협안사업에서도 훌륭했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은 완공 시기가 2014년까지 미뤄진데다 '찔끔 예산'으로 이미지 어려

운 게 현실이다. 서남해안에서도 시사사업(J 프로젝트)도 시행 10여년 만인 지난달 24일에야 실시설계 승인을 했으며, 호남고속철 사업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2012년 조기 완공은 이미 물건너갔다. 2014년으로 당초보다 1년 앞당겨졌지만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 진정 호남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된 참여정부에서도 차별은 마찬가지였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문화수도사업마저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협안 사업을 외면하기 일쑤였다. 특히, 호남고속철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 불가론'을 수차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아온 게 사실이다. 부산항과 투포트로 육심카로 한 광양항에 대해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축소개발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호남이 역대 정권의 '혹', '영남의 '혹' 같은 대접을 받았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국책 사업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하고 호남은

'가지' 취급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인사에서도 배려라는 말이 자연스레 쓰일 정도다. 호남은 결국 수십년간 국책사업에 있어 투자효율이라는 명분과 원칙없는 정치논리에 밀려왔다. 오죽했으면 박 당선인 스스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고, 여당 대표는 "국민대통합의 문제"가 호남에 집중되는 문제라고 했겠는가.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 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호남 등 지역 차별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동서화합과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등 다수다. 이외에 광주 세계수영대회 유치 정부 지원, F1 차질없는 개최,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등 관심을 가져야 할 협안 사업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공약사업과 여타 지역협안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상태다.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누차 강조했던 만큼 임기 첫 해부터 호남 관련 협안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 더 이상 '영남 혹' 취급 말아야

호남은 대대로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해 공장도 물류도 부족하다.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 수도권으로 다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당선인 등 관계자들은 뜨거운 가슴으로 호남인의 삶의 현장을 체험해봐야 한다. 왜 호남의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를 위해 그토록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레이만 진정으로 호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지 않았는가.

인디언 속담 중에 '흔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고 함께 할 때만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박 당선인이 '흔자(영남)', '빨리'가 아닌 '함께(전국·전국민), 멀리'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합·대통령'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임기 내내 유념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wskim@kwangju.co.kr

## 온피클럽



김병인

## 희망을 주는 민주당을 보고 싶다

떠한 상황에서도 야권의 대선 승리는 쉽지 않음에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던 민주당이 독선과 진영논리에 빠져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무조건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경상도 유권자는 호남의 두 배 빙이며 새롭게 태어난 종편 TV방송국을 비롯한 언론 환경도 거의 일방적으로 여권 후보를 지지해줘, 객관적인 조건이 야당에 너무 불리한 선거였다. 그래서 대선 기간 내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민주당이지만 이런 악조건에서도 다음 대선을 기대해 불만한 성적을 거둔 민주당에게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다.

이미 두 번이나 대선 실패를 경험한 민주당은 실패한 대선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가운데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국정 운영 능력의 불신으로 미래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적 비전 제시에 실패한 것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은 대부분이 구호만 있고 국민이 실제를 느끼지 못했다. 또 지나치게 야권 단일화에 매달려 경제민주화, 복지, 안보 등의 정책에서 여권 후보에 선점당하게 되면서 야권의 정책이 여권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고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대선 폐쇄 이후 민주당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당내 리더십 부재, 조직력 부족, 계파 정치 등 많은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민주당이 반복해 민주화세력이라고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의 예상 어린 충고이다. 모두 겸허하게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수용해야 한다. 먼저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야권의 정권 교체 실패로 48%의 국민이 실망과 허탈감으로 멘붕에 빠졌는데, 국민과 함께 아픔을 공유해야 할 때 의원들이 한가하게 외유나가는 정당에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근본적으로 혼신하고 변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당의 지속적 발전과 진보와 변화는 시대적 당위이다.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서 아픔을 극복하고 더욱 튼튼한 정당으로 태어나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정당이 되기를 기원한다.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을 활용한 지오토어리즘과 주변의 역사 및 가문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탐방객의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이용시설의 규제적인 조성을 통해서 광주시에 집중된 탐방객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공원관리와 이용에 따른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원관리 업무를 관할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책무가 특히 크다. 시민이 보여준 무등산 보전 노력에 부응하여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탐방지원시설 설치, 사유지 매입, 명품마을 조성 등 무등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끝으로 공원지구에서 제외된 광주호 일원 가문문화유적의 보전 및 연계 활용, 주상칠리대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에 후속 조치를 착실히 추진하여 무등산을 광주·전남의 자부심을 고양하는 유산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만5000원이 들었다. 아이는 세 개 시험을 3회씩 치르는데 60여만원을 사용했다. 오피리를 위한 사설 학원비에도 매달 20만원씩 총 60만원이 더 들었다. 아이는 다행히 석 달 만에 원하는 점수를 얻었지만 구직자 중에는 자격을 얻는 시간이 1년도 더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백수 생활이 서러워 졸업 전후 재빨리 취직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니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견뎌내기 힘들다.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이 취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값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 심지어 공인 한자능력

## 기고



김종일

##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의의와 과제

원활 예정이어서 체계적인 공원관리 및 이용시설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무등산은 사유지의 비율이 74.7%로 매우 높은 데다 주민과 투표를 제외한 약 25%의 비율로 아동이 대선 승리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야권 단일화, 높은 투표율을 제고 등 야권이 필승 카드라고 믿었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화되면서 그동안 대선 폐쇄를 경험한 민주당에게 그 이면은 더욱 커졌다. 많은 사람의 실망과 허탈감으로 멘붕(정신 붕괴) 상태였다. 사실 우리의 객관적 정치 구도를 보면 어

인 대상에 대한 자선의 목소리도 표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에 노력은 아끼지 않는 차지단체,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올해는 무등산 공유화운동이 시작된 지 어언 23년째이고, 여기에 8만여명이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하여 현재까지 약 45만㎡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무등산 공유화운동은 국내 최초의 일이었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발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시민들의 이러한 노력이 계기가 되어 군부대 이전, 원주민촌 이전 및 생태공원 조성, 입석대와 서석대의 개방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민주화시대 이후에 올릉도, 비무장지대(DMZ), 태백산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근 사반세기 만에 국립공원이 신규 지정된 점도 그만큼 추진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대구, 경남에서는 팔공산, 화왕산의 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각각 재점화되면서 그동안의 소극적

을 활용한 지오토어리즘과 주변의 역사 및 가문문화유적을 활용한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탐방객의 증가에 따라 우려되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원 이용시설의 규제적인 조성을 통해서 광주시에 집중된 탐방객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공원관리와 이용에 따른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백수 생활이 서러워 졸업 전후 재빨리 취직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하니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견뎌내기 힘들다.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이 취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값비싼 비용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 심지어 공인 한자능력

## 취업 위한 스펙쌓기 비용·시간 낭비 너무 심하다

"토플은 기본이고요. 영어 구술시험인 토픽에 오피(OTPIC), 중국어능력시험(HSK) 등 이런 것까지 갖춰야 해요."

대학에 들어간 우리집 아이가 요즘 준비하는 것들이다. 소위 기업들이 요구한 스펙을 갖추기 위해 그런다고 하는데, 물론 다방면으로 유능하고 똑똑하면 좋겠지만 이런 도대체 신작 존재를 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역시 그 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훨

지다. 먼저 토픽에 들어가면 토픽은 물론 HSK와 함께 오피(OTPIC)와 중국어능력시험(HSK) 등 이런 것까지 갖춰야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키우는 학부모들 역시 그 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훨

을 갖춘 구직자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곳까지 있다고 한다. 거기다 비즈니스 영어 능력 시험인 불라츠(BULATS)와 국제영어공인시험인 지털프(G-TELP)라는 것도 있다.

구직자들이 이러한 취직 자격을 갖추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느라 허덕이는 일은 결국 학교에 충실히 학문적 깊이를 공부해야 할 시기에 엉뚱한 시간을 뺏기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기업이나 구직자를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업무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 그리고 인성 위주의 채용은 어려운 걸까.

▲정진혁·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 시설

## 국립공원 무등산에 대형 타워 추진이라니

전남도가 무등산에 518m 높이의 대형 전망대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립공원 승격 이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횡당한 발상'이라는 반응이다.

전남도는 "광주·북구와 담양·화순 일원 무등산 내에 국비 2240억 원을 포함, 총 3200억 원을 들여 518m 높이의 전망타워를 2017년까지 건립키로 하고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높이 518m는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것이라 고한다.

이 계획에는 또 중심사 입구·장불재, 화순 수만리·장불재에 이르는 2개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8인승 케이블카 40대를 운영키로 하고, 정차장 4개소도 건립한다는 복안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무등산은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영하 10도를 밟도는 혹독한 추위 속에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전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영광원전 5·6호기가 최근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호기는 여전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여서 자칫 최악의 정전대란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7일부터 다음달 22일 까지 전기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실내 온도 20도 이하 유지로 하는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단속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는 난방기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도 안되며, 오후 전력 피크시간대인 5~7시까지 네온사인을 제한하거나, 온도계를 10도 중 1곳이 '장사'를 이유로 정부 방침에 역행한 것이다. 또 이날 밤 일부 모텔과 상점들도 네온사인을 휘황찬란하게 켜놓은 채 영업을 했다고 한다.

전기 및 에너지 낭비는 전력대란 등 국가적 재앙을 부르게 된다. 에너지 절약은 이제 필수이다. 국민 모두가 생활화해야 하는 이유다. 각 직장과 상가, 호텔 등도 에너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 역시 전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無等鼓

동양에서 범은 기피의 대상이다. 두 갈래 혀와 온몸을 감싼 비늘로 대표되는 거친한 외모, 사람을 해치는 치명적인 독, 냉혹한 눈과 차가운 피 등이 범의 이미지를 실증시킨 주법이다.

신화나 설화에서도 아무리 잘 쳐줘도 유피로 등장하는 것은 고작이다. 중국의 4대 민간설화 중 하나인 백사전(白蛇傳)에서는 미녀로 변신해 인간과 사랑을 키워가는 보물로,

그리고 강원도 치악산 상원사의 연기설화(緣起說話)에서는 인간을 해치려니 실패하는 사악한 존재로 나온다.

하지만, 서양에선 범이 신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 동물인 경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 맥시코의

뱀신 '케찰코아틀'이다. '깃털 달린 뱀'으로 불리는 케찰코아틀은 우주의 생성에 관여한 신으로 송배를 받았다.